

# “내 모든 질문의 가장 깊은 접은 언제나 사랑”

## 한강 작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 요약문

소설가 한강이 7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에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을 통해 그동안의 작품 세계와 사회, 집필중인 작품,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특히 한강은 자신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에 대해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며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강의 강연에서 일부 발췌한 요약문이다.

### 빛과 삶

지난해 1월, 이사를 위해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구두 상자 하나가 나왔다. 열어보니 유년 시절에 쓴 일기장 여남은 권이 담겨 있었다. 표지에 '시집'이라는 단어가 연필로 적힌 얇은 종첩 제본을 발견한 것은 그 포개어진 일기장들 사이에서였다.

책자의 뒤쪽 표지에는 1979라는 연도와 내 이름이, 내지에는 모두 여덟 편의 시들이 표지 제목과 같은 연필 필적으로 도박도박 적혀 있었다. 페이지의 하단마다에는 각기 다른 날짜들이 시간순으로 기입되어 있었다. 여덟 살 아이답게 천진하고 서툰 문장들 사이에서, 4월의 날씨가 적힌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다. 다음의 두 행짜리 연들로 시작되는 시였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 사랑이란 무엇일까? /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일기장들과 그 책자를 원래대로 구두 상자 안에 포개어 넣고 뚜껑을 덮기 전, 이 시가 적힌 면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다. 그 여덟 살 아이가 사용한 단어가 몇 개가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뛰는 가슴 속 내 심장.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 그걸 잇는 금(金)실- 빛을 내는 실.

그후 14년이 흘러 처음으로 시를, 그 이듬해에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나는 '쓰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5년이 더 흐른 뒤에는 약 3년에 걸쳐 완성한 첫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시를 쓰는 일도, 단편소설을 쓰는 일도 좋아했지만-지금도 좋아한다- 장편소설을 쓰는 일에는 특별한 애착이 있었다.

하나의 장편소설을 쓸 때마다 나는 질문들을 견디며 그 안에 산다. 그 질문들의 끝에 다다를 때-대답을 찾아낼 때가 아니라- 그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 그 소설을 시작하던 시점과 같은 사람일 수 없는, 그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변형된 나는 그 상태에서 다시 출발한다.

세번째 장편소설인 '채식주의자'를 쓰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나는 그렇게 몇 개의 고통스러운 질문들 안에서 머물고 있었다.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더 이상 인간이라는 중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는 이 질문들에서 더 나아간다.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삶과 세계를 거부할 수는 없다. 우리는 결국 식물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겠는가? 정체와 이빨리체의 문장들이 충돌하며 흔들리는 미스터리 형식의 이 소설에서, 오랫동안 죽음의 그림자와 싸워왔던 여주인공은 친구의 돌연한 죽음에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분투한다.

다섯번째 장편소설인 '희랍어 시간'은 그 질문에서 다시 더 나아간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말을 잃은 여자와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는 각자의 침묵과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나아가다가 서로를 발견한다. 이 소설을 쓰며 나는 묻고 싶었다. 인간의 가장 연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그 부인할 수 없는 온기를 어루만지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이 덧없고 폭력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그 질문의 끝에서 나는 다음의 소설을 상상했다. '희랍어 시간'을 출간한 후 찾았던 2012년의 봄이었다. 빛과 파스칼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설을 쓰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마침내 삶을, 세계를 끌어안는 그 소설을 눈부시게 투명한 감각들로 충전하겠다고. 제목을 짓고 앞의 20페이지 정도까지 쓰다 멈춘 것은, 그 소설을 쓸 수 없게 하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점까지 나는 광주에 대해 쓰겠다고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

1980년 1월 가족과 함께 광주를 떠난 뒤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학살이 벌어졌을 때 나는 아홉 살이었다. 이후 몇 해가 흘러 서거에 거꾸로 꽃인 '광주 사진첩'을 우연히 발견해 어른들 몰래 읽었을 때는 열두 살이었다.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저항하다 곤봉과 총격, 총격에 살해된 시민들과 학생들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 당시 정권의 철저한 언론 통제로 인해 왜곡된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비밀리에 제작해 유통한 책이었다. 어렸던 나는 그 사진들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그 훼손된 얼굴들은 오직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으로 내 안에 새겨졌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나는 생각했다. 동시에 다른 의문도 있었다. 같은 책에 실려 있는, 총상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대학병원 앞에서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질문이 충돌해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한강 작가가 7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 전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니까 2012년 봄, '삶을 깨닫는 눈부시게 밝은 소설'을 쓰려고 애쓰던 어느 날, 한 번도 풀린 적 없는 그 의문들을 내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오래전에 이미 나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를 깨안을 수 있겠는가?

그 후 1년 가까이 새로 쓸 소설에 대한 스케치를 하며, 1980년 5월 광주가 하나의 결점으로 들어가는 소설을 상상했다. 그러다 망월동 묘지에 찾아가는 것은 같은 해 12월, 눈이 몹시 내리고 난 다음 날 오후였다. 어두워질 무렵 심장에 손을 얹고 얼어붙은 묘지를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다. 광주가 하나의 결점이 되는 소설이 아니라, 정면으로 광주를 다루는 소설을 쓰겠다고. 900여 명의 증언을 모은 책을 구해, 약 한 달에 걸쳐 매일 아침 시간씩 읽어 완독했다. 이후 광주뿐 아니라 국가폭력의 다른 사례들을 다룬 자료들을, 장소와 시간대를 넓혀 인간들이 전 세계에 걸쳐, 긴 역사에 걸쳐 반복해온 학살들에 대한 책들을 읽었다.

그렇게 자료 작업을 하던 시기에 내가 떠올라곤 했던 두 개의 질문이 있다. 이십대 중반에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페이지에 적었던 문장들이다.

이 소설을 쓰는 일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겠다고 거의 체념했을 때 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읽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자치의 절대공 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 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일 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비처럼 알게 되었다. 두 개의 질문을 이

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후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 이따금 그 묘지에 다시 찾아가는데, 이상하게도 갈 때마다 날이 맑았다. 눈을 감으면 태양의 주황빛이 눈꺼풀 안쪽에 가득 차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나는 느꼈다. 말할 수 없이 파스칼 빛과 공기가 내 몸을 에워싸고 있다고.

이 소설의 한국어 제목은 '소년이 온다'이다. '온다'는 '오다'라는 동사의 현재형이다. 너라고, 혹은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불리는 순간 희고 무대한 어둠 속에서 깨어난 소년이 혼의 걸음걸이로 현재를 향해 다가온다. 점점 더 가까이 걸여와 현재가 된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바로 지금이 순간에도.

같은 해 유월애 꿈을 꾸었다. 성근 눈이 내리는 발판을 걷는 꿈이었다. 발판 가득 수천수만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심겨 있고, 하나하나의 나무 뒤쪽마다 무덤의 봉분들이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운동화 아래에 물이 밝혀 뒤를 돌아보자, 지평선인 줄 알았던 발판의 끝에서부터 바다가 밀려들어오고 있었다. 왜 이런 곳에다 이 무덤들을 썼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꿈에서 깨어나 아직 어두운 창문을 보면서, 이 꿈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꿈을 기록한 뒤에는 이것이 다음 소설의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어떤 소설인지 아직 알지 못한 채 그 꿈에

서 뻔어나갈 법한 몇 개의 이야기를 앞머리만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2017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제주도에 월세방을 얻어 서울을 오가는 생활을 했다. '소년이 온다'를 쓸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살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읽고 자료를 공부하며, 언어로 치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잔혹한 세부들을 응시하며 최대한 절제하여 써간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것은, 검은 나무들과 밀려오는 바다의 꿈을 낚 아침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났을 때였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뒤 3년이 흐른 지금, 아직 나는 다음의 소설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책을 완성한 다음에 쓸 다른 소설도 오래 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다. 태어난 지 두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언니에게 내 삶을 잠시 빌려주려 했던, 무엇으로도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우리 안의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흰'과 형식적으로 연결되는 소설이다. 완성의 시점들을 예측하는 것은 언제나처럼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나는 느린 속도로나마 계속 쓸 것이다. 지금까지 쓴 책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다.

지난해 1월 낡은 구두 상자에서 찾아낸 종첩 제본에서, 1979년 4월의 나는 두 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사랑은 무엇일까? 한편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2021년 가을까지, 나는 줄곧 다음의 두 질문이 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질문 사이의 긴장과 내적 투쟁이 내 글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첫 장편소설부터 최근의 장편소설까지 내 질문들의 국면은 계속해서 변하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이 질문들만은 변하지 않은 일관된 것이었다.

사랑은 '나의 심장'이라는 개인적인 장소에 위치한다고 1979년 4월의 아이는 썼다.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소설을 쓸 때 나는 신체적 사용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부드러운 온기와 차가움과 통증을 느끼는, 심장이 뛰고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걷고 달리고 바람과 눈비를 맞고 손을 맞잡는 모든 감각의 세부들을 사용한다. 필멸하는 존재로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몸을 가진 내가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들을 전류처럼 문장들에 불어넣으려 하고, 그 전류가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때면 놀라고 감동한다.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는 것을, 생명의 빛과 전류가 흐르는 그 실에 나의 질문들이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에. 그 실에 연결되어 있었고, 연결되어 줄 모든 분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ACC '마음치유교육' ... 11~19일 문화교육실5

'기록과 표현을 통해 감정과 마주하기', '색을 통해 나를 디자인하기'.

기록을 통해, 색을 통해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교육이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마음치유교육'을 운영한다. 오는 11~19일 문화교육실5에서 모두 10회.

먼저 '기록과 표현을 통해 감정과 마주하기'는 ACC 공공미술 설치작품인 왕두 작가의 '승리'(2015)'와 연계해 나만의 글쓰기를 한다. 작품을 보면 저마다 느끼는 기억과 감정이 있는데 이를 모티브로 글로 표현해보자는 취지다. 글로 내면에 갖은 억압의 기제를 풀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색을 통해 나를 디자인하기'는 ACC에 설치된 마탈리 크라셋 작가의 '리플렉시티(2015)' 작품을 모티브로 공간과 상호작용 등을 색을 통해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교구재 개발에 참여한 최희수 임상심리사는 "내가 선택한 색이 곧 스스로를 드러내는 마음의 소리가 될 수 있다"며 "반복적이고, 정교한 컬러링 활동은 몰입 상태를 유발해 불안과 걱정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교육영상(15분)도 별도 제작해 교구재와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교육은 콘텐츠를 매개로 상한 마음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고 전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

##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V 'Modern' ... 11일 광주예술의전당

클래식 음악에서 '모던주의'는 단순히 현대성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신고전주의 등이 추구하던 미학을 '갱신'하는 데 의미가 있다. 클래식펠 사이 임지를 다진 20세기 모던주의의 매력을 만끽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티움 콘서트 V 'Modern'을 오는 11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올해 오티움 시리즈 마지막이며 20세기 현대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해설에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연(지휘).

라틴어로 한기한 시간, 학예활동 등을 뜻하는 오티움(Otium)은 휴식과 생산을 동시에 함의하는 표현이다. 공연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Jino Park)

며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에 빠져본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시리즈다.

공연은 현대 작곡가인 베베른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5개의 소품 Op.10'으로 시작한다. 5장까지 연주 시간이 5분 미만일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는 곡으로 클라리넷, 트롬본, 헬레스타, 하프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슈니트케, 스트라빈스키 작품 배경을 해설하고 다양한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20세기 음악의 다양성을 선사한다.

대미는 노부스 파르렛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재영, 김영욱이 '슈니트케 바이올린 2개를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 1번'을 협연할 예정이다. 바로크적 요소가 20세기 콘체르토 그로소(합주협주곡)와 어우러져 교유의 아름다움을 발한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꼭따다 악기 편성을 달리해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재미가 있는 베베른 작품부터, 드뷔시를 추모하며 현정현 스트라빈스키의 노래까지 폭넓은 작품을 선보인다"며 "해설과 함께 20세기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쉽게 풀어내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S석 2만원, A석 1만원. 전당 누리집 예매.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